

KTAS 주증상 목록을 이용하여 다음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가장 적절한 KTAS 주증상을 찾아 보라.

호소하는 증상	KTAS 주증상
1. 75세 남자가 힘이 약해지고 걷기 힘들며 계속 자려고 한다고 호소한다.	
2. 42세 남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반응 없이 발견되었다. 그는 중등도의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피부는 차고 창백하며 축축하다.	
3. 18세 여자가 차고의 문을 닫고 차 시동을 켜놓고 앉아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응급환자 분류담당자의 질문에 대답하려 하지 않았으나 그 밖에는 협조적이었다.	
4. MRI 검사를 위해 응급실로 온 환자.	
5. 68세 여환이 4시간 전부터 심한 흉통과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6. 임신 8주 차인 28세 여환이 질출혈과 복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7. 단독 교통 사고로 내원한 30세 여환이 목 통증과 전반적인 복통을 호소한다. 의식 소실은 없었고 의식은 명료하며 대화는 원활한 상태이다.	
8. 66세 여환이 예리한 두통 후에 의식을 잃었으며 경련하는 상태로 내원하였다.	
9. 17세 여환이 전신 가려움증과 목이 조이는 것 같은 증상을 호소하나 삼킬 수는 있다. 호흡 곤란 및 어지럼증을 호소한다. 얼굴은 부어있고 붉고 얼룩덜룩한 발진이 덮고 있다.	
10. 2개월 전에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 했다고 하는 24세 여환이 복통을 호소한다.	

2.3 KTAS 분류단계 결정하기

분류담당자는 첫인상 평가(Critical look), 또는 환자가 안정적인 상태라면 추가적인 병력 청취나 간단한 진찰을 통해 환자 분류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KTAS 주증상 카테고리에서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주증상을 선택해야 가장 정확한 KTAS 분류단계를 결정할 수 있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3-5초 간의 첫인상 평가(Critical first look)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KTAS 단계를 재빨리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심각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질환이나 손상으로 내원하는 응급도가 높은 환자(KTAS 1 - 소생, KTAS 2 - 긴급)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면 경련을 하면 서 응급환자 분류소로 들어오는 환자는 KTAS 1이며 심장과 관련된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는 2단계이다(물론 쇼크 상태이거나 심한 호흡 곤란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환자는 응급환자 분류를 위해 더 이상의 정보가 필요 없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경우 KTAS 분류단계 결정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고려사항(modifiers)은